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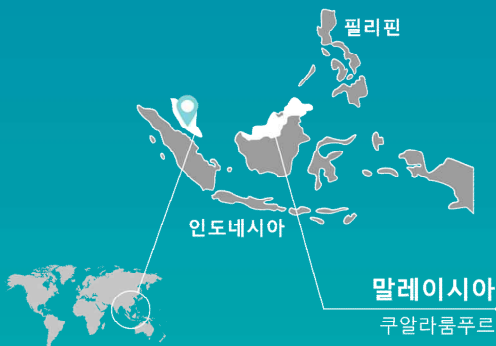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말레이시아

Federation of Malaysia

2019년9월27일 | 책임조사역(G3) 이자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30천 km <sup>2</sup> 	<b>인구</b> 32.801백만명 (2019기준)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연방형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비동맹 중립 
<b>GDP</b> 3,734.47억 달러 	<b>1인당GDP</b> 11,385.11 달러 	<b>통화단위</b> Ringgit 	<b>환율(U\$기준)</b> 4.16 

-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그 중 11개 주는 말레이 반도 남부(서말레이시아)에 위치하며, 2개 주(Sabah, Sarawak)는 보르네오 섬 북서부(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및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말레이계 62%, 중국계 21%, 인도계 7%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긴 하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말레이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음.
- 2018년 5월 제14대 총선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연합(PH)이 승리하여,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취임 2년 이후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던 공약의 원만한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팜오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중소득국임.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위하여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등의 신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 중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북한과는 1973. 7. 2 )

**주요협정** 무역협정('62),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투자보장협정('89), 자원협력양해각서('95),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7,533,347	8,044,985	8,993,879	반도체, 철구조물, 석유제품(경유 등), 합성고무
수 입	7,507,773	8,714,718	10,205,684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중유 등), 컴퓨터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6월 기준 누계, 총투자기준) 897건, 5,381,669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5.1	4.2	5.9	4.7	4.7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3.8	1.0	2.0
재정수지/GDP	-2.6	-2.6	-2.4	-3.6	-3.0

자료: IMF, EIU

### • 2018년 경제성장률은 4.7%로 전년(5.9%)대비 둔화

- 2017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5.9%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8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의 해외 수요 감소,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4.7%로 하락하였음.
- 2019년에도 말레이시아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2019년 월 260달러) 등으로 인한 꾸준한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GDP의 산업별 비중 : 서비스업 55.5%, 제조업 23%, 광업 7.9%, 농업 7.8%, 건설업 4.5%

### • 2017년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나, 2018년에는 안정세로 전환

- 2015~16년에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식료품 및 주택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8%로 상승하였음.
- 2018년에는 신선식품 가격 안정 및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세율 인하, 연료보조금 제도 부활 및 연료가격 상승 억제 등 새 정부의 주거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전년(3.8%)대비 완화된 1.0%의 완만한 물가상승 추세를 시현하였음. 2019년에는 국제유가 및 가격상승제 시행 시기 등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 • 중앙은행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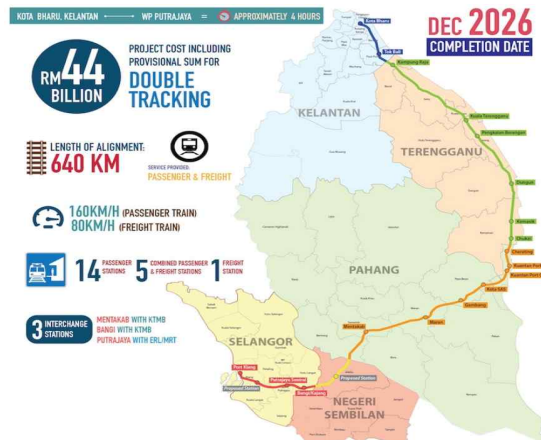
- 2019년 5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3년 만에 정책금리(OPR; Overnight Policy Rate)를 0.25%p 인하하였음(3.25% → 3.00%).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기화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리 인하를 통해 국내수요 창출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함.

\* BNM의 정책금리(%) : 3.25 → 3.00('16.7월), 3.00 → 3.25('18.1월), 3.25 → 3.00('19.5월)

•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재개 등을 통한 경기부양 도모

- 2018년 5월 취임한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승인했던 중국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단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였는 바, 2018년 8월 말레이시아의 과도한 국가채무 및 과도한 프로젝트 비용(당초 150억 달러 → 200억 달러) 책정 등을 주장하며 동부해안철도 건설사업(ECRL)\*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음.
  - \* 동북부의 태국과의 접경지역인 코타바루(Kota Bharu)에서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거쳐 말라카해협의 클랑(Klang)까지 총 640km에 이르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
- 2019년 4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재협상 끝에 프로젝트 비용을 당초 655억 링깃에서 440억 링깃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 금번 ECRL 프로젝트 재개로 인해 건설업 분야의 활력이 제고되고, 최근 소비 및 수출 감소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기존의 말레이시아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점, ECRL 프로젝트가 말레이 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동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음.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개요



\* 자료 : paultan.org

• 민간소비 촉진 및 경기 부양 추진을 위한 세제개편 영향으로 재정적자 폭 확대

- 정부는 상품·서비스세율(GST)을 기존의 6%에서 0%로 조정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5년 4월에 폐지된 서비스·판매세(SST; Service and Sales Tax)를 재도입(서비스세 6%, 판매세 5~10%)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 완화 및 민간 소비 촉진에는 기여하였으나, SST의 과세 예외 항목이 기존 GST(총 545개 품목)에 비해 약 10배에 해당(총 5,443개 품목)하는 등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대비 1.2%p 확대된 -3.6%를 기록하였음.

상품·서비스세(SST) 요율 체계

구분	내 용
5%	올리브, 해바라기, 버터, 휴대폰, 컴퓨터 등
6%	(서비스세) 호텔, 보험, 게임, 회계·법률, 직업소개, 광고 등
10%	위스키, 캐음료, 가전제품, 화장지, 화장품, 자동차, 의류 등
과세 예외 품목	육류·채소·과일류·쌀·커피·설탕 등 생활필수품, 의약품, 자전거 등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9,068	7,133	8,960	7,590	9,017
경상수지/GDP	3.1	2.4	2.9	2.2	2.4
상 품 수 지	27,944	24,535	27,316	29,553	29,636
상 품 수 출	174,631	165,520	186,586	206,315	212,246
상 품 수 입	146,687	140,986	159,270	176,762	182,610
외 환 보 유 액	91,429	91,194	98,938	97,788	98,755
총 외 채	152,005	168,299	176,758	178,833	188,015
총외채잔액/GDP	51.3	56.7	56.2	50.5	50.4
D.S.R.	21.4	23.4	21.1	20.4	20.0

자료: IMF, EIU

#### • 201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

- 2018년에는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나, 외국기업의 투자이익 실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증가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더 크게 증가(90억 달러→128억 달러)하여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대비 다소 축소된 2.2% 수준을 나타냄.
- 2019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폭 감소의 영향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약 2.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운송비 지출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서비스 분야에서 여행 산업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수출 지향적인 경제 특성상 운송비 지출의 영향을 받아 서비스수지는 당분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 외채지표는 2017년 이후 개선 추세이나 모니터링 지속 필요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하였으며, 2018년에도 총외채규모(1,788억 달러)가 외환보유액(978억 달러)을 상회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2018년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66.1%를 차지하여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으로, 외채상환에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6년 79.2%에서 2017년 74.5%, 2018년 68.7%로 축소되었고,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50.5%로 전년(56.2%)대비 하락하였으며, D.S.R도 2016년 23.4%에서 2017년 21.0%에 이어 2018년 20.4%를 기록하는 등 외채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음.

## 구조적취약성

### • 인근 ASEAN 주요국 대비 작은 내수시장 보유

-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적어(3,200백만 명) 경제 규모 확대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으며, 특히 ASEAN-5 국가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2.7억 명), 필리핀(1.1억 명), 베트남(9,500만 명), 태국(6,900만 명), 미얀마(5,300만 명) 등 말레이시아 인근 주요국들의 인구는 말레이시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성장잠재력

### •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인프라 환경 및 기업경영여건 양호

- 2018년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부문에서 140개국 중 32위를 기록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철도 13위, 도로 20위, 항만 20위 및 전력공급 28위임.
-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 여건이 양호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함.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종합순위는 190개국 중 2018년 및 2019년 연속 15위를 유지하였음.

###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연고무와 팜오일이 풍부하여 세계 주요 자원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유리함.
- 팜오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임. 최근에는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2019년 1~4월 중 중국으로의 팜오일 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25.5만 톤(14억 링깃) 증가하였음.

### • 최근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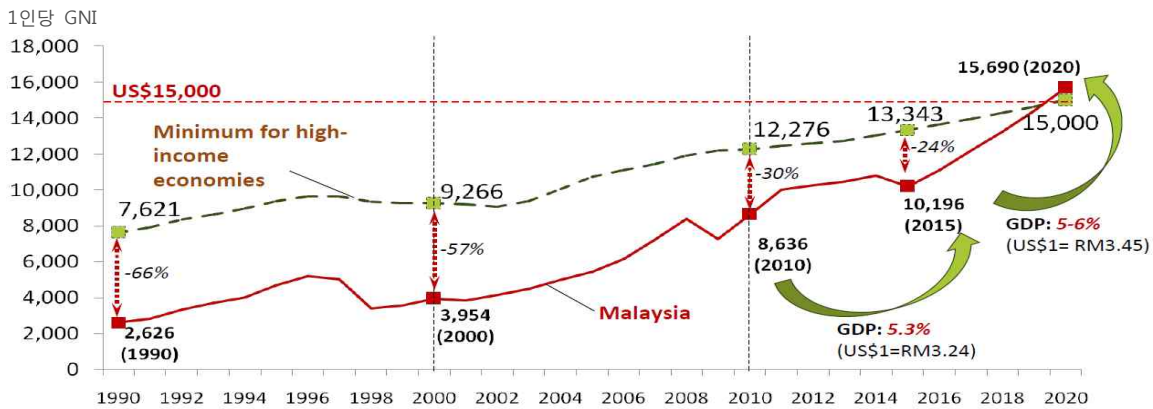
- 2018년 3월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통합 추진계획 2018~2020'을 수립하여 여행산업의 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등 관광 부문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9년 11월 개장 예정인 세계 최초의 '20th Century Fox World' 등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세계 10대 관광국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특히 코타키나발루가 위치한 사바 지역은 서울·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타이페이·마닐라·브루나이 등을 연결하는 100여개의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컨퍼런스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



## 정책성과

-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 2016~20년 기간에 적용될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연 5~6%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2015년 대비 노동생산성 19.7% 향상 및 월평균 가계소득 71.6%(1,781달러→3,057달러) 증가, 1인당 GNI 15,000달러 이상(15,690달러)의 고소득국 진입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함.
  - 2016~17년 기간 중 연평균 5.1%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당초 목표인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물가상승률도 평균 2.9%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말레이시아 1인당 소득 및 고소득국 기준과의 비교



\* 자료: Economic Planning Unit, Prime minister's Department

- 2018년 10월 '11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간 점검 실시
  - 2018년 10월 마하티르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함.
  - 2018년 11월 중간점검을 통해 2018~20년 중 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계층·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최근 수년 간 외채 증가 및 보호무역주의 등을 반영하여 평균 경제성장률 및 2020년 소득수준 달성 목표 등을 하향 조정\*함.

\* 경제성장률은 2018~20년 중 연 4.5~5.5%, 2020년 소득수준은 1인당 GNI 47,720 링깃(11,695 달러)으로 하향 조정

- 양자간 및 ASEAN FTA, CPTPP, RCEP 등을 통해 시장개방 가속화

-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총 7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올해 안에 FTA체결을 위해 양국이 서로 노력하고 있음.
- EU와는 2015년 12월 이후 FTA 협상을 재개하였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도 협상 중이며, 2018년 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발효되는 등 역내 경제공동체 참여를 통한 무역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는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을 체결하여 재탄생하였으며,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음.

## 정치동향

- **당초 취임 2년 이후 약속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권력이양 시기에 관심 집중**
  - 2018년 5월 독립 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던 마하티르 총리는 당초 '취임 2년 이후 당내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재에게 총리직을 이양'하기로 공약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양 시기 및 후계자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이브라힘 총재는 2019년 8월 말까지도 내각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후계자로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마하티르 정부의 말레이계 우대정책 재검토 추진에 따른 말레이계 반발**
  - 민족 구성(말레이계 60%, 중국계 23%, 인도계 7%)이 복잡하고, 중국계에 부가 편중되어 있음. 정부는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1971년부터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부미푸트라)을 실시하고 있음.
  -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말레이계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민족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중국계와 인도계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게 되어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음.
  - 2018년 12월 말레이시아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말레이계 우대정책 폐지를 우려한 말레이계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비준을 무산시킨 바 있음. 마하티르 정부는 말레이계 우대정책 유지를 원하는 말레이계 및 원주민들이 야권 지지로 돌아서면서 국정동력이 많이 약화됨.
-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 횡령 자금 회수 본격화**
  - 나집 전 총리는 국부펀드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45억 달러(약 5조원) 규모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는 마하티르 총리 집권 2주만에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스위스·싱가포르·미국 등에 은닉된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함.
  - 싱가포르 법원은 2018년 9월 1MDB와 연루된 1,530만 싱가포르 달러(약 131억원) 반환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3월 추가로 3,400만 싱가포르 달러(291억원) 반환 판결을 내렸음. 미국도 횡령 자금과 관련하여 압류한 자산 중 약 2억 달러를 말레이시아에 반환할 예정이며, 스위스도 현재 1MDB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음.

## 사회동향

- **보르네오 섬 지역의 사바(Sabah) 및 사라왁(Sarawak) 주의 자치권 주장**
    - 11개의 주가 위치한 서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세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사바와 사라왁 주가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지역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자치주로 인정받은 바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1963년 말레이시아 협정'\* 체결일인 2018년 9월 16일에 사바 및 사라왁 주가 연방 내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힘
- \* 영국과 말레이 연방이 체결한 협정으로, 영국은 싱가포르, 사바 및 사라왁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말레이 연방의 주로 편입됨.



## • 말레이시아 법무부, 사형제 폐지 발표 및 일부 수정

-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 법무부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현재 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기존 말레이시아 법령은 각종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1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7년 11월 의회는 위험약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마약 밀매 범죄에 대해서 일정 요건 하에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9년 3월 말레이시아는 사형제 완전 폐지보다는 필요적으로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11개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였으며, 인권변호사 및 사회단체들은 작년 10월 계획에 비해 개혁이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음.

## 국제관계

### •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부활 및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

- 마하티르 총리가 1981~2003년 집권 시절 추진했던 동방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국·일본 등으로부터 배우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임.
- 마하티르 총리는 취임 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에 특히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첫 해외순방지로 일본을 선택하였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은 중요한 요소임.
-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자본, 기술 획득을 위하여 우호관계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ASEAN·미국·싱가포르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노력

- ASEAN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으로 이슬람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는 반테러 활동과 지역 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는 등 관계가 개선된 이후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 및 무역업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와는 나집 전 총리 관련 수사에도 적극 공조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 '일대일로' 프로젝트 재개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 지속 전망

- 중국과는 1974년 ASEAN 국가 중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으며, 인구의 23%가 중국계인 점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4월, 마하티르 정부가 2018년 취임 직후 국가채무 감소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단 및 재검토를 선언했던 주요 프로젝트의 재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협력관계를 이루어왔던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로 중장기 채무 위주로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하였으며, 2018년에도 총외채규모(1,788억 달러)가 외환보유액(978억 달러)을 상회함.
- 2019년 3월 기준, 말레이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53.7억 달러(단기 18.2억 달러, 중장기 35.5억 달러)로, 중장기 외채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는 안정적인.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19.06)	2등급(2018.06)
Moody's	A3 (2017.12)	A3 (2016.01)
Fitch	A-(2018.08)	A-(2016.08)

- 주요 신용평가사 기존 신용등급 유지
- 재정적자 지속,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가계 소비 확대 등 내수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 주요 분야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신용평가기관 모두 기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연간 4.2~7.5%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한 말레이시아는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10,942달러)하였으며, 고소득국(1인당 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독립 61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2018년 5월 취임한 마하티르 총리는 취임 2년 이후 정권을 이양하기로 공약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임.
-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면서도, 민족·지역 간의 갈등 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특히 전 국민의 약 23%인 중국계가 말레이시아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등 민족 간의 경제적 갈등 요소가 상존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품·서비스세율(GST) 조정 등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중단되었던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재개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